

# 태풍의 10態 10戒

김 우 탁 <기상정보센터>

여름은 태풍의 계절.

수소폭탄 2천개의 위력이다 3억톤의 물을 싣고 직경 2천킬로미터나 되는 넓은 세력권을 가진 것이기에, 우리가 입는 기상재해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으뜸을 차지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태풍에 대한 상식이 필요하다. 여기 태풍의 십태(十態)와 십계(十戒)를 간추려 본다.

## • 태풍 10態

1) 태풍은 위력에 따라 라이트급에서 헤비급까지 있다. 태풍이라고 하면 무조건 큰 바람을 몰고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심기압을 기준으로 해서 980mb(밀리바) 이하면 태풍을 크게 염려할 것이 못된다.

2) 태풍은 진로 방향에서 우측의 바람이 강하다. 태풍을 원형이라 보면 중심에서부터 내역과 외역으로 나눌 수가 있고 우측반원과 좌측 반원으로 쪼갤 수 있다.

그래서 바람은 우측반원 중에서도 내역과 외역의 경계가 되는곳이 가장 강하다. 여기에 비하면 좌측반원에서 부는 바람은 문제가 안될 정도이다.

3) 태풍권내에서의 강우는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강하고 후방에선 약하다. 따라서 중심이 지나간 후에는 다소 예외가 있긴 하나 비에

대한 염려는 없어진다. 태풍 역내에 서의 비는 태풍중심이 올 때까지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다.

4) 태풍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비가 내리는 경우가 있다. 이럴때는 큰 홍수에 유의해야 한다. 이런 경우 비는 태풍의 영향으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태풍이 접근하면 태풍 자체에서 내리는 비와 합쳐져 홍수가 나기 쉽다. 그래서 큰 홍수를 면할 수 없다.

5) 태풍은 진로를 향한 우측후반의 파도가 가장 높다. 원래 파(波)라는 것은 같은 풍속이라도 바람부는 시간과 관계가 깊기 때문이다.

6) 속도가 빠른 태풍은 쉽사리 약해지지 않으며 바람에 따른 피해도 커진다. 태풍의 속도는 느린 것이 시속 20km, 보통은 시속 30km로서 시속 50km가 되면 급행에 속한다.

따라서 30km를 경계로 해서 이보다 빠르면 육지에 상륙해서도 태풍의 위력이 약해지지 않아 큰 피해를 가져온다.

7) 태풍은 강한 것일수록 북상하는 성질이 강하다. 태풍이 방향을 바꿀 때 쯤해서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보통이고 일단 방향 전환을 하고나면 그 진행속도가 빨라진다.

8) 태풍은 사행(蛇行)하고 있다. 이것은 해방후 미국의 비행기가 태풍관측을 하면서부터 알려진

것인데, 태풍의 진로를 예상하는 예보자들에게 큰 타격이 되는 것이다.

제주도로 향해 북상하고 있는 태풍이 자칫 빗나가면 중국 산둥반도 쪽으로 가기도 하고 대마도 쪽으로 꺾기도해서 남해안 지방의 상륙지점을 예상하기가 어렵게 된다.

9) 태풍에는 눈(颱風眼)이 있어 태풍권내에서는 푸른 하늘이 보이고 비도 그친다. 그래서 태풍일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왕왕 생긴다.

비바람이 세다가 갑자기 조용해 지면서 하늘이 벗겨지는 현상이 생기면 바로 태풍 중심권에 들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태풍의 중심은 곧 지나가고 비바람은 다시 이어진다.

10) 태풍의 눈이 큰(넓은)경우는 태풍이 쇠하고 있는 증거이다. 태풍안의 직경이 50~70km 일때가 가장 강하다. 이것이 100, 150, 200km로 넓어지면 그 태풍은 쇠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 • 태풍 10戒

1) 태풍은 먼곳에서도 너울을 전파시킨다. 따라서 해안지방은 태풍이 1천킬로미터 밖에 있을 때도 경계해야 한다.

2) 태풍이 접근할 때는 평지보다 산위에서 먼저 날씨가 악화된다.

3) 중심기압이 990mb가 될때까



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4) 태풍통보가 발표되면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며 앞으로의 동태에 유의해야 한다.

5) 순간 풍속은 기상대에서 말하는 예상풍속보다 2~3배 가량 세다.

6) 순간풍속이 초속 40m가 되면 기왓장이 날아가고 50m가 되면 집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7) 태풍이 오면 집안에서는 우선 창과 문을 철저히 방비해야 한다.

8) 고조(高潮)시에는 물이 불어 나는 속도가 빠르다. 육지로 물이 넘치는 것을 볼 때는 이미 때가

늦다.

9) 비가 많아지면 홍수와 벼락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0) 태풍권내에 있으면서 한때 바람이 약해지고 하늘이 보인다고 위험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 • 태풍 잡기(雜記)

1) 태풍의 수명은 약 일주일, 길게 잡아 2주일 정도다. 남양에서 발생해 우리나라까지 오는 데는 8~10일이 걸리는 게 보통이다.

2) 태풍은 이로운 점도 있다. 여름철 가뭄이 계속되고 수은주가 연일 하늘높은 줄 모르게 치솟을

때는 태풍으로써 가뭄과 더위를 물리칠 수 있다.

3) 한창 더울 때인 7~8월의 태풍보다 찬바람이 일기 시작하는 9월에 오는 태풍이 그 위력도 강하고 피해도 더 많이 남긴다.

4) 태풍은 열대성저기압의 일종으로 그 진로를 극동지방으로 잡는 것을 가리킨다. 같은 열대성 저기압이라도 인도양에서 위세를 떨치는 것은 「사이클론」, 오스트리아로 가는 것은 「윌리윌리」라 칭한다.

5) 태풍 즉 타이푼(Typhoon)은 영어이나 그 어원은 셈어의 「도우황」(소종돌이라는 뜻)에서 유래한다. 셈어는 북아메리카에서 서남아시아에 널리 퍼져 있고 「해브라이어」 「페니키아어」, 「아라비아어」가 여기에 속한다.

6) 태풍이 발달해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12m 이상 되면 태풍의 번호와 이름이 부여된다. 태풍의 이름은 알파벳 순에 따라 4개조로 구성된 이름을 짜놓고 전년도에 이어 순서대로 부여한다.

7) 태풍의 작명소는 「괘」도에 있는 미합동 태풍경보센터로 1945년 8월 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태풍의 이름이 전부 여성 이름에서 딴 것이었으나, 미국여성들의 끈질긴 항의로 지금은 남성과 여성 이름을 교대로 하고 있다. ☉